# 김의형 "무형자산 빠진 회계정보, 유용성 떨어뜨려"

〈회계기준원장〉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9주년**

**수요자, 회계정보 불만족**
**재무보고 원칙과 방식**
**빠른 시일내에 개선돼야**

지난 14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현재 재무보고는 기업이 가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제대로된 기업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 만큼 재무보고의 원칙과 방식이 빠른 시일내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무형자산을 누락한 재무보고는 회계적 측면에서 정보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재무보고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고, 현재와 같은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무제표에는 투자한 회사의 사업환경, 사업구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최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10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 기업가치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제 기업들은 공장, 건물,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 중요하지 않다"며 "20년 뒤에는 사업을 위한 자산이 무형자산만 있는 기업이 대부분일 지 모른다"고 역설했다.

'일관성'있고 '다양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무형자산 반영은 회계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복잡성,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말을 끝맺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무형자산 재무보고의 현황·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 교수는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은 11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회계 정보가 수요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기업의 주가와 순이익의 상관관계는 90%에 달했지만 현재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절반밖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송 교수는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경영자 시각에서 기업 재무제표 해석 정보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이익과 현금흐름의 질·변동성에 대한 자발적 공시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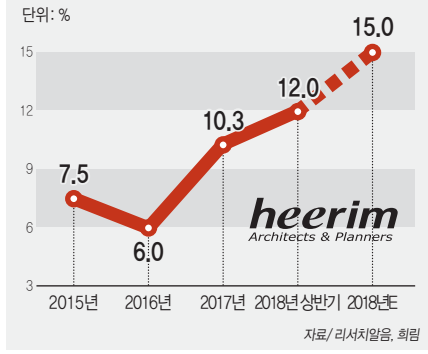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중국 내 대형 대북사업자와 MOU
#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유력

**株라큘라의 종목**

**희림**

개성공단 추가 개발사업 기대
연말 수주 15%까지 확대 전망




"오는 18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제협력 실무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수혜를 입을 경협주에 대한 선별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6일 희림이 최근 중국 내 거대 대북사업자와 북한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희림이 업무협약를 맺은 업체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기업인 신성실업유한공사다.

신성실업은 중국 라오닝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건자재·철강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투자그룹으로, 연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행사를 포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등 대규모 행사에 매번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 내 면세점이나 섬유공장, 상가, 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등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희림은 신성그룹과 함께 진행하는 북한 내 각종 프로젝트에서 건축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희림은 과거 개성공단 내 공장과 종합지원센터,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청사 등 주요 건물들의 설계를 담당했었던 만큼 개성공단 추가 개발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9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설계 및 감리비용이 통상 총 사업비의 10% 내외에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수주 시 큰 폭의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북한 내 관광특구가 개방되면 호텔, 면세점, 카지노, 공항 등 신규 건설투자가 확대돼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림의 상반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 역시 지난 6월 이후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에 불과하던 해외매출 비중은 지난해 10%까지 성장했고, 올해 연말에는 1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희림의 신규 수주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베트남 롱탄국제공항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설계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도 유력해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희림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8650원을 제시했다. 지난 3월 제시한 6900원보다 25% 가량 상향 조정한 것으로 현재 주가보다 51% 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수준이다. /손엄지기자

# 감사인 선임기한 4개월→45일 대폭 단축

**금감원**

**내달 시행 신외감법, 유의사항 안내**
**후보 평가, 직권지정사유 확대 등**

오는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등이다.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기간이 단축된다.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곳과 외부감사대상 첫 해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직접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또 감사보수와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는 대폭 확대된다.

기존 사유에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로는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등이다.

코넥스를 제외한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는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사업연도부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또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9·13 부동산 대책·추석 연휴로 분양열기 주춤

**분양캘린더**

**전국 14곳서 4760가구 분양**

9월 셋째 주에는 '9·13 부동산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잠시 쉬어간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올해 청약 시장에서 쾌조를 보인 대구의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대구에선 현대건설이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라온건설이 달서구 진천동에 분양하는 '진천 여가온프라이빗센텀' 등이 있다.

다만 추석 연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며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한 곳도 없다. 당첨자 발표는 9곳, 당첨자 계약은 8곳에서 예정돼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9월 셋째 주 수도권 분양캘린더〉 부동산114

| 날짜 | 구분 | 위치 | 아파트명 |
|---|---|---|---|
| 9/17 (월) | 계약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장안동 U포그니 2차(~9/19) |
| | |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 군포송정 A1(영구임대)(~9/18) |
| | | 경기 화성시 오산동 |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3BL) (~9/19) |
| 9/18 (화) | 접수 | 경기 안양시 안양동 | 안양 KCC스위첸 1순위 |
| | 발표 | 인천 서구 오류동 | 검단오류역우방아이유쉘 |
| | 계약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 의정부고산S1(공공임대) (~9/20) |
| 9/19 (수) | 접수 | 경기 안양시 안양동 | 안양 KCC스위첸 2순위 |
| | 계약 |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 군포송정 A1(국민임대) (~9/21) |
| 9/20 (목) | 접수 | 경기 부천시 심곡동 | 부천심곡우림필유 1순위 |
| | | 인천 계약구 작전동 | 작전역서해그랑블 1순위 |
| | 발표 | 경기 이천시 마장면 | 이천마장지구리젠시빌란트더웰(A1) |
| 9/21 (금) | 접수 | 경기 부천시 심곡동 | 부천심곡우림필유 2순위 |
| |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작전역서해그랑블 2순위 |